

‘WCC 단체는 적그리스도’ 2013년 부산총회 끝까지 반대

한국 기독교 wcc 반대 대책위원회 제3차 160교단장 및 28 단체장 연석회의

2013년 부산총회는 끝까지 반대
저지해 나갈 것을 취지로 지난 5월 31일 오전11시 코리야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다. 윤현주 목사(공동부회장 예상고신 부총회장)의 진행으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한양수 목사(공동대표 예상 총회장)의 기도와 회계 송태섭 목사(교려개혁 총무)가 성경 창세기 1:1-5절을 봉독하고 길자연 목사(상임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 대표회장)는 「말씀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다」는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길 목사는 “wcc의 신학은 성경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만신 목사(상임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증경 대표회장)는 “복음적으로 나아가자는 운동을 치하한다”며 격려사를 했다. 또한 지역 목사(상임고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서정배 목사(공동대표 예상합동 총회장), 양정섭 목사(상임고문 개혁교단협의회 이사장) 등이 격려사를, 조성훈 목사(예



장 연합회이사장), 지왕철 목사(보수교단 이사장) 등이 축사에서 WCC반대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재철 목사(한국 기독교 wcc 반대 대책위원장)는 “150개 교단장이 한꺼번에 모인 역사적인 자리”라며 “적그리스도와와의 마지막

싸움으로 생각하고, wcc 본부가 없 어질 때까지 총력하여 외치자”면서 다짐했다. 이어 김인식 목사(예 장연 대표회장)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관현 목사(개신교단협의회 총재)는 한국교회 정체성을 위하여, 각각 특별 기도를 가졌다. 이어 서기 강구원 목사(예장고려

이날 2부에서 WCC반대대책위는 연석회의에 들어가 WCC단체는 적 그리스도’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세계교회협의회(WCC)를 ‘종교 다원주의’나 ‘용공주의’라고 공격해 오던 것을 수위를 높였다. 또한 2013년 WCC 부산총회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3부에는 이승렬 목사(공동 회장 개혁총회 총회장)의 오찬 기도가 있었다. 대책위는 이날 교단 별로 wcc 반대 조직구성을 요청하고, 또한 반대 운동을 위한 특별 예산을 책정하고 후원금 모집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예상통합총회와 기장, 기암 등 국내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는 WCC를 ‘적그리스도’로까지 몰고 가며 규정한 발언들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WCC 총회를 유치한 가평 교단들과 WCC 유치를 반대하는 개혁주의 교단과 판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사설

모두가 ‘일리一理’ 뿐인 세상, 다시 6월에

신록이 무성한 푸르른 6월이다. 우리에게 6월은 가슴 벅찬 희망의 감상보다는 아픈 역사의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계절이다. 인류역사상 민족적인 경사를 기념하는 민족은 많으나 민족의 수치와 아픔을 기념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뿐이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였을 때,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겨 모세를 통해 구출해 주셨다’는 아픈 고백이 숨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즐기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절치부심 결단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런 아프고 수치스런 역사를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어떤가? 해방된 8.15 광복절은 축하하고 즐기면서, 100년 전 이 나라가 일본에게 강제로 합병당한 8.29 국치일과 동족상잔의 피바다를 이루고 천만 이산가족을 쏟아낸 6.25는 얼마나 뼈아프게 되새기며 기념 하고 있는가? 아픔과 수치를 쉽게 망각하는 개인이나 민족은 미래가 없다. 똑같은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안 함 사건에다 6월 초 지방선거를 치르며 혼란스런 한두 달을 보내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의 총수들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많은 이 민족을 책임질 리더 들, 그리고 언론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같은 말, 말, 말들을 들으며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길로road mark를 삼아 따라갈 것인가?

사람의 말과 논리는 사물과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부터 나온다. 육안으로, 있는 사실faction을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시력 라하고, 마음과 생각의 눈으로 사물을 볼 때 견문, 의견, 견해라 하고, 철학과 신념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관觀, 세계관, 인생관이라는 논리가 나온다. 2천 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이 마리아의 옥막 사건을 경험한다.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은인, 예수님의 방면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마리아는 어머니가 딸 둘의 결혼 자금으로 남겨놓은, 향유< 현 시가, 3천만 원 상당)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씻어드린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 가롯 유다는, 3,000만원 상당의 값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편이 낫지, ‘쓸데없이 더러운 발 씻는 데 허비’한 바보 같은 여자 로 바라보고, 나머지 11명도 유다의 논리에 암묵적 동의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참으로 좋은 일beautiful things to me, 영원히 기념될 만한 ‘위대한 낭비’를 했다고 칭찬 한다. 왜 이렇게 한 사건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를까? 유다의 논리는 일리一理가 있다. 일리一理는, 수많은 이치理致 가운데 하나가 맞을 때, 일리一理 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이 일리一理에 동의 할 때, 합리合理가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다수가결의 원칙을 합리주의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예수님만 여기에 반대논리를 펼친다.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영원히 기념될 만한 ‘위대한 낭비’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논리는 진리眞理인 것이다. 진리는 다수多數와 합리合理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쏟아내는 일리一理뿐, 진정한 합리合理도 진리眞理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록이 무성한 푸르른 6월인데, 혼란스럽고 목이 마르다.

예장 웨신총회 2010전국교역자하계수련회 개최



예장 웨신총회 2010전국교역자하계수련회 사진, 전년도 사진



총회장
성홍경 목사

회를 개최, 특별 강사로 립택 권 박사(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를 초대했다.

대회장 성홍경 목사(총회장)는 “주님의 이름으로 총회 동역자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2박3일 일정에 따라 영적 성장과 활력을 불어 넣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 성 총회장은 동역자간의 화합과 교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아쉬웠다고 말하고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각 노회의 교류와 동역자간의 친밀한 만남과 교

제로 총회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명실공히 결속된 총회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고 2박3일 주어진 기간 덕담을 나누며 영적 충전을 통하여 총회와 각노회, 각자 섬기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5월7일 첫 날 오후 7시 김준택 목사 사회로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담전 4:6-8 절로 “선한 일군”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다. 8일 저녁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우수성」을 주제로 립택권 목사가 특강에 들어간다.

2010전국교역자하계수련회는 대회장 성홍경 목사(총회장), 명예대회장 장정수 목사(증경총회장), 준

비위원장 이홍규 목사(부총회장), 집행위원장 김준택 목사(서기), 협력위원장 심재호 목사, 예배위원장 장창운 목사, 대회총무 신인창 목사, 대회서기 이기식 목사, 대회회계 허성인 목사 등이 맡아 진행하고 그 외 공동운영협력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증경노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등이며, 각부서 담당 부장은 각 სამ부에서 진행한다.

또한 이번 수련회의 특징은 각 노회별 자유시간과 불링대회, 탁구대회,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아울러 행운권 추첨을 통해 좋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 목회 현장에 활력 넘치는 선물들로 기대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2010전국교역자하계수련회

명예대회장



장창수 목사
웨신 증경총회장

대회장



성홍경 목사
웨신 총회장

주감사



립택권 목사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장

주 제 : 일어나라 웨신이며(사 60:1)

일 시 : 2010년 6월 7일(월)~ 9일(수)

장 소 : 단양 대령 리조트

회 비 : 개인5만원, 부부7만원(숙식,간식,기념품제공)

주 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전 화 : (043)420-8439

문 의 : 010-8602-3009(대회총무)

후 원 : 지저스타임즈JTNT방송(www.JTNTV.KR)

총회임원

총회장



성홍경 목사

부총회장



이홍규 목사

서기



김준택 목사

부서기



조광표 목사

회의록서기



이기식 목사

부회의록서기



고영진 목사

회계



허성인 목사

부회계



정일영 목사

총무



신인창 목사

대회 준비 및 진행 위원

준비위원장



이홍규 목사

진행위원장



김준택 목사

협력위원장



심재호 목사

예배위원장



장창운 목사

대회총무



신인창 목사

대회서기



이기식 목사

대회회계



허성인 목사

웨신총회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 화 : 02)835-2606-7

팩 스 : 02)835-2608 홈페이지 : http://www.ws21.kr 이메일 : ok@ws21.kr

총회고문



임원환 목사



김순진 목사



이원석 목사



정합갑 목사



이종우 목사



정계규 목사



이일영 목사



이이중 목사



김기남 목사

“오산반석교회 신앙유산서약식”

IN사역은 심장과 같이 끊임없는 희생, 섬김, 돌봄, 나눔, 헌신에 최선을



오산반석교회(김봉주 목사)는 신앙유산 서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담임 김봉주 목사)에서 5월 23일 신앙유산서약식을 가졌다. 김봉주 목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자는 운동을 시작하여 올해로 4년째 이 행사를 하고 있어, 오산지역 교회와 동역자들로 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교회성장과 부흥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 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의 기초(교회의 틀 혹은 구조)를 세워, 첫째 교회는 하나님과 시대를 위하여 세워졌다. 하나님나라(왕국 건설)를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교회를 위한 제도를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으며, 전 민족을 거룩한 언어백성을 만들기 위한 교회요,

둘째 교회를 위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인데 UP사역은 임재와 체험이 있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IN 사역은 심장과 같이 끊임없는 희생, 섬김, 돌봄, 나눔, 헌신에 최선을 다한다. OUT사역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요

셋째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고 필요로 하는 교회로 세워졌다. 첫 사랑(First Love)운동은 예수사랑 운동으로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운동이다. 끝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4부(자살, 이혼, 낙태, 중

독)을 방지하는 No World운동을 한다.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바른 지식, 성품, 영성을 길러주는 Next Generation운동을 한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교회를 세워나아가고 있다고 김봉주 목사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설교 본문은 로마서 9:8절

오늘날에도 잘못된 종교에 속한 사람들,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이단에서 나온 무도 열심히 하는 그들은 감탄할만 한 열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길로 갈 뿐이다. 바른 지식은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과 둘째, 예수

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성품이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바른 영성을 지닌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자녀들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 로마서 12:1”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이다.

둘째는 고린도전서 14:12에”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게 함을 위하여 하라”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이다며 말씀을 선포했다.

김기원 목사 성역 33주년, 출판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위제일교회 김기원 목사는 5월 27일(목)오후 5시 서울시 장충동 2가 엠배서 더호텔 2층에서 성역 33주년을 기념하며 출판(104권)감사예배를 드렸다. 송용걸 목사(신천교회) 인도로 김기원 목사 성역 3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시작되어 박상훈 목사(송동교회)가 기도하고, 김재오 목사(애린교회)가 마태복음 25:20~21절을 봉독,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제하의 말씀을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선포하고, 김정남 장로(장위제일교회)가 광고를, 예장합동 중경총회 장 서기행 목사(대성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인수 장로(기독연예인 신우회장)의 사회로 2부가 진행되어 하태조 장로(한국장로회연합회)가 광고를, 예장합동 중경총회 장 서기행 목사(대성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김동권 목사, 장차남 목사, 신신목 목사 등이 격려사를, 정성구 목사, 이재천 사장, 최병



김기원 목사 내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것은 책을 집필하는 것이라고 확신 했습니다.”

두 목사, 박성호 목사, 양병희 목사, 서상식 목사, 한동숙 목사, 주대훈 장로, 등이 축사를, 전덕기 권사, 정삼일 시인, 등이 축사를, 선한목자음성의 축가와 흥성개목사의 축복기도가 있었다.

이날 김기원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 존경하는 선배, 동역자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책을 집필하면서 오른팔의 마비와 통증이 두 번이나 재발되었지만 중단할 수 없는 것은 불순종했던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이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요 계속 기도와 지도 편달을 바란다면 인사를 전했다.

이어 3부에는 안영화 교수(경기대)의 진행으로 김정배 목사의 만찬기도가 있은 후 축하 위선과 공연 등이 있었으며, 조지현 목사 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본보 JTN방송 이사 및 해외지사장 임명감사예배

지지스타임즈 JTN방송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는 6월 5일(토) 오전 11시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소재 열린찬양교회(장창윤 목사)에서 이사 및 해외지사장을 사령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사무총장 장창윤 목사(열린찬양교회)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본보 기획실장 신연창 목사(웨신총회 총무)의 기도가 있은 후 예수 사랑선교예수단(손찬현 목사)은 「사명」이란 주제로 위선찬양이 있었으며, 김수정 목사(구로경찰교회 담임, 구로 교경협의회 사무총장)는 요한복음 20:15-18절을 인용「누구를 찾느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해 참석자들로 큰 은혜를 끼쳤다. 이어 복음가수 이순옥 목사가 봉헌찬양을, 사회자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태국 오지마을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어 2부 위축식이 진행되고 정태종 목사(임무실장)의 위축기도가 있은 후 태국 치앙마이 전승주 선교사, 방글라데시 박해근 선교사를 각각 본보 지사장에 사령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신문규 목사를 상임이사로, 이용남 전도사, 양기선 집사를 실무 운영이사로 사령하고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전승주, 박해근 기지는 오지에서 사전을 넘나드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며, 복음을 전하는 오지의 선교사역에 대해 필자의 마음으로 기사를 전송하게 된다. 또한 상임이사 신문규 목사와 운영이사 이용남 전도사와 양기선 집사는 문서선교를 위하여, JTN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신문사와 인터넷 방송 운영에 있어 실무이사이다. 이날 상임교본 김호일 목사(생명나무교회, 경남마산 전 국회의원 3선)가 격려사를,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인사에 이어 고문 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담임 현 병 우 목사
(본지, JTN방송 부사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피종진 목사 6월 국내·외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번지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7,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33@gmail.com

- 5.31(월)~2(수) 일본(JAPAN) 千葉縣(지바현) 가엘산신식기도원 (원장 김태실 목사) ☎ 070-8625-9118
- 3(목) 오후 일본(JAPAN) 동경연합성회(대회장 이창길 목사), YMCA 대강당
- 5(토)~ 6(주) 인천 명성교회(박명덕 목사) ☎ 010-7726-0675
- 6(주일) 오후 천안 안디옥교회(최병수 목사) ☎(041)551-5204
- 6(주일) 오후 서울 선한이웃교회(윤창규 목사) ☎ 010-5339-6437
- 7(월)~10(목) 서울 한사랑감리교회(임영훈 감독) ☎(02)2647-4060
- 11(금)~12(토) 인천 제일복음교회(이병복 목사) ☎(032)434-0691
- 11(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 13(주)~16(수) 서울 은빛교회(정강을 목사) ☎ 010-8990-8784
- 14(월)~17(목) 광명 생수기도원(원장 윤순덕 목사) ☎(02)2683-4202
- 17(목) 오후 서울 삼각산민족기도원(원장 이안나 목사) ☎(02)396-0675
- 18(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 18(금)~19(토) 부산 JSTV 선교센터 위성방송성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사장 이종문 목사) ☎ 010-9549-1701
- 21(월) 오후 오산리최자살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031)947-0091
- 주최 : 21세기지구촌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김시중 목사)
- 제159차 해외성회(159th Overseas Assembly)
- 22(화)~23(수) 터키(Turkey) 이스탄불 세계한인교회 지도자 컨퍼런스(대회장 김수명 목사)
- 장소 : 이스탄불 Eser Premium Hotel ☎(025)3474-1770
- 24(목)~27(주) 이탈리아(Italy) 로마한인교회(한평우 목사) ☎ 39-06-7698-8533
- 29(화)~30(수) 미국(U.S.A) 뉴욕 Henderson C. University(Dr Paul Kim) ☎(980)329-0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전도



2010 목회 지침
아버지여!! 간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간절의 성도 - 간절의 영감 - 간절의 물질
간절의 충성 - 간절의 선교

담임목사 : 이재갑
장 로 : 박광순 김혜자
전 도 사 : 김영주, 오경순, 김성일, 박에스터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예장웨신 대한노회 명칭변경 감사예배



노회장
정한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대한노회(가칭) 노회장 정한국 목사(주사랑교회)는 지난 5월 12일 임시노회를 소집, 남서울노회와의 결별을 선언한 가운데 5월 18일 오전11시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에서 대한노회(가칭)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부노회장 오상렬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이창우 목사(새 예루살렘교회)가 기도를, 방윤희 목사(성령진리교회)가 성경 이사가 62장 1-3절을 봉독하고 주사랑교회 여전도회의 찬양이 있었으며, 노회장 정한국牧사는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니라”는 말씀을 선포했다. 서기 윤장석 목사는 광고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고, 총회장 성홍경 목사 축도로 마쳤다. (구) 남서울노회를 서기 윤장석 목사가 가칭 대한노회로 변경, 결의문을 낭독했다.



(가칭)대한노회로 개칭하고 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

결의문 낭독

첫째 우리는 대한노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최권권위로 세우며 복음과 진리의 개혁신명에 입각한 보수정통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

셋째 우리는 대한노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직권으로 다스려지는 즉 노회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노선에 순종, 협조하는 하나가 될 것을 다짐한다.

넷째 우리는 오늘부터 대한노회 이름 안에서 하나이며, 노회원간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하나 된 노회로서의 결속과 발전을 도모하며 더불어 총회발전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다섯째 우리는 대한노회의 명칭변경이 정기총회의 9월 본 승인되기 전까지 대한노회의 새 이름을 행정과 노회운영 활동면 등에서 기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온전히 매진한다.

송미순 목사 교회설립 3주년 맞아 감사예배 드려



물댄동산교회 3주년감사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송미순 목사)는 교회설립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29일(토) 오전 11

시 본 교회에서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다.

송미순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합동진리총회 부총무 홍기남 목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김종인 목사(분당 포도원교회)가 성경을 봉독하고, 남 여전도회의 찬양이 있는 후 합동진리 총회장 한기창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현금송에는 김하은 목사(에덴교회)가, 이윤성 목사(물댄동산교회)는 현금기도를 드렸으며, 공로패 전달이 있는 후 이원근 목사(월대비전교회)가 축사를, 정기남 목사(JTN방송 저지스타임즈 대표), 감시종 목사(21세기 지구촌 복음화 대표회장) 등이 격려사를 전하고, 김효일 목사(생명나무교회) 축도로 마쳤다.

강신숙 목사 '백혈병 환우 돕기 가스펠 콘서트'



강신숙 목사 백혈병 환우 위한 가스펠 콘서트

『하나님께 영광! 빛이여! 사랑이여!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라』라는 주제로 시작된 강신숙 목사는 백혈병 환우를 돕기 위한 가스펠 콘서트를 지난 5월 25일 (화)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사뮈엘지주예술교회 17주년 기념, 문화예술신학교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가스펠 콘서트는 백혈병 환우를 돕기 위하여 진행된 행사였다.

이날 식전행사와 예배가 드려지고 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70명이 넘는 목사, 장로, 사역자 등이 연출해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찬양과 율동으로 성화를 이룬 가운데 「주님여 이손을 꼭잡고 가소서」휘날레를 끝으로 전야 목사 축도로 막을 내렸다.

2010부산세계선교대회 7월 4~7일 개최

에딘버러100주년기념 부산선교대회로 선교신학정립

2010부산세계선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수웅 목사)는 '1910년 에딘버러세계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부산과 경남의 모든 교회를 동원하여 선교에로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딘버러 선교대회 100주년을 맞아 올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선교모임이 개최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에딘버러100주년기념 선교대회와 NCOWE V(선교전략강의) 두 종류의 주제를 갖고 '2010부산 세계선교대회'가 7월4(주일)~7일(수)까지 수영로교회(정필도 목사)에서 개최된다.

각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 선교담당목사와 서교위원장과 위원 및 선교관신자 그리고 선교단체장과 간사, 선교관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는 전 교회가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또한 각 교회와 선교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 비전과 전략들을 나누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미완성 과업의 성취를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회 기간 중 첫날 이종운 박사(서울교회 담임,2010한국대회 대

표대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새벽과 저녁시간을 통해 나절임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 신화석 목사(안디옥성결교회 담임), 권영수 선교사(필리핀) 등을 초청, 선교부흥회로 이어진다.

낮 시간에는 이복수 교수(고신대), 안희열 교수(침례신대), 최형근 교수(서울신대), 신경규 교수(고신대), 황흥열 교수(부산장신대)등의 교수들이 선교신학 주제강연을 하며, NCOWE 5(선교사 전략강의)의 강사로 정보에 선교사(UPMA대표), 한정국 선교사(KWMA사무총장), 최일식 목사(KIM대표), 이덕주 교수(감신대교수), 조명순 선교사(한국형선교개발원장), 이현정 선교사(UBF대표)등을 통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진다. 특히, 이번 대회기간 중 각 선교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교회 담임목사와 선교관심자들이 선교단체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선교전략이나 모델을 나누면서 배우고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네트워크를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준비위원장 박수웅 목사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과 열정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이 모든 성장했듯이 부산·경남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 성장을 돌겠다”며 대회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민족복음화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 특별기도 주문”

<기도한국 2010>은 6월 20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대회를 가져 3만5천여 명이 참가를 목표로...



총회장
서정배 목사

에서 예배와 기도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서울·경기지역 목회자 초청 나라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교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기도회는 공동준비위원장 정삼자 목사(제자교회)의 사회와 부총회장 박정하 장로(대전중앙교회)의 기도를, 광명중앙교회 노홍빈 목사의 성경봉독과 예정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가 설교했다.

서 목사는 마태복음 7장 7절~11절을 본문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



민족복음화와 나라의 평화를 위해 특별기도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민족의 큰 축복임을 강조했다.

또한 서 목사는 “지금은 특별히 정하 장로(대전중앙교회)의 기도를, 광명중앙교회 노홍빈 목사의 성경봉독과 예정합동 총회장 서정배 목사가 설교했다.”며 “교단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자.”며 호소했다.

이어 새에덴솔리스트양상블의 특별찬양과 남대섭 목사(총회 서기), 남승환 장로, 정진모 목사(총

회 부서기), 김장근 장로(광천교회), 윤정길 장로(총회 회계), 하귀호 목사(GMS 부이사장) 등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6월 20일 기도한국 대회를 위해, 500만 성도운동과 2만 교회운동들을 위해, 5천 선교사 파송과 세계 선교를 위해 각 각기도에 나섰다.

특히 이날 대회 대표위원장 길자연 목사(왕성교회)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의인보다 기도하는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교단이 구조적인

모순이 많이 있지만, 비판과 모략으로 교단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폭발적인 교단으로 만들어 주신다.”며 기도한국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도회는 '기도한국'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대회 서기 김인기 목사의 행사 안내, 대회 기획 총무 박원영 목사의 동원계획, 이치우 총무의 광고에 이어 부총회장 김삼봉 목사(대한교회)축도로 마쳤다.

기도한국은 오는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3만 5천여명이 참가하는 기도한국2010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12시부터는 6.25 상기 주먹밥 먹기 행사와 기도운동, 전도운동, 봉사활동, 사랑의 실천 등 4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기도와 함께 삶의 변화를 위한 운동을 병행한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기도한국은 오는 2012년 교단설립 100주년 때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방극철 목사 에바다기도원 원장 취임예배



(좌)명예원사 현영애 권사 (우)원장 방극철 목사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응답의 동산 은혜의 동산 능력의 동산 에바다기도원(명예원장 현영애 권사는)는 지난 5월 8일(토) 오전11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소재에서 대전 세누리교회 부설 에바다기도원 명예원장 현영애 권사, 원장 방극철 목사 등이 에바다기도원 대성전에서 취임예배를 드렸다.

동부시찰장(성능교회) 김승호 목사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박대순 목사(지구촌사랑교회)가 기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

를, 대전노회서기 신기범 목사(새하늘교회)가 성경봉독을, 하늘사 랑찬양단, 신숙희 집사, 마리아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대전노회 노회장 류형식 목사(하늘문교회)가 “시대가 요청하는 사무엘”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회계 박정락 목사(신탄진평강교회)가 봉헌기도를, 증경노회장 이영재 목사(함신승리교회), 증경노회장 윤도영 목사(통일전망대 다사랑교회), 대전백석신학교

학장 양병직 목사(대전소망의교회), 동-신학연구원장 김황제 목사(대전은평교회) 등이 격려사를, 증경노회장 김재홍 목사(북부제일교회), 증경노회장 이강재 목사(평강교회), 부노회장 이병후 목사(가양제일교회), 세계선교회 회장 김성권 목사(전안성산교회) 등이 축사를, 원장 방극철 목사(새누리교회)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추대패, 취임패, 꽃다발 등을 전달 교환하고, 대 다사랑교회), 대전백석신학교

양교회)축도로 마쳤다.

이날 원장 방극철 목사는“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기도원은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는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 능력의 동산, 기적의 동산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다.

또한 본 기도원은 매주 목요일 9시30분부터 철야예배를, 매월 둘째주(월-목)는 성령축복성회가 있으며, 7-8월은 연속집회를 갖는다면서 기도원 교문으로 정문호 목사, 이기달 목사, 지도위원 김선규 목사, 유종현 목사, 감사단장 윤도영 목사, 등을 소개하고, 본 기도원은 원로 목사, 장학사업, 선교사후원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두고 있다며, 명예원장 현영애 권사와 원장 방극철 목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367 / 043-833-54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누리교회 부설 에바다기도원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 응답의 동산 / 축복의 동산
능력의 동산 / 에바다기도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에바다기도원 전경모습



명예원장 현영애권사



원장 방극철목사

에바다기도원은 매주 목요일 9시30분 철야예배를 매월 둘째주(월~목)는 성령축복대성회가 드려지고 있다.

7월과 8월은 연속집회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말씀과 기도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임종직전에 있는 중환자가 치료할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동산 에바다기도원이다. 자살로 생을 포기하려던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얻어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367번지 전화 043)833-5455

지저스타임즈 유성 스파델에서 이사회 열어

본사 고문, 상임이사, 운영이사, 전국 16개지사 지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제3회 이사회 열려


지저스타임즈 JTNT방송(사장 소진우 목사)은 지난 5월14일(금)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유성계룡스파델 무궁화홀에서 고문, 상임이사, 운영이사, 전국 16개지사 지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제3회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사무총장 장창운 목사(열린찬양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기획실장 신언창 목사(웨신총무)가 기도를, 사장 소진우 목사(서울예복교회 담임)는 출애굽기 14:26-31절 말씀을 인용“때로는 사람에게 따라서”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중부권지사장 박양우 목사(전 대전경찰청 교경협 사무총장)가 문서선교 후원을 위한 봉헌기도가 있었으며,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웨신 전 부총회장)가 인사 및 광고를 전하고 고문 이원석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



본사 고문, 상임이사, 운영이사, 전국 16개지사 지사장들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제3회 이사회를 열고 있다.

쳤다.

이어서 정 대표이사 사회로 2부가 진행되어 중부권지사 상임총무 양송섭 목사(임마누엘교회, 대전 서부경찰서 경목실장)의 기도로 제3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대표이사 정 목사는 한국의 중심도시인 대전에서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게 협력해 주신 중부권지사장 박양우 목사와 동지사 상임총무 양송섭 목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사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장 소진우 목사는 본사 발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자리를 같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

하고 지저스타임즈 JTNT방송 사장과 대표이사 이름으로 서영웅 목사(퓨리탄신학교학장), 정민호(금호상조 대표이사)등을 상임이사로, 박주성 목사(선일장로교회)를 전주지사장으로 각각 시령했다. 이어 전국 지사장들의 인사와 지사 운영방침과 각 지사에서의 활동사항 등을 보고 받았으며, 각 지사가 더욱 활발하게 문서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발행부수를 늘려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각 지사장들과 이사진들의 화기에애한 가운데 본사발전과 JTNT방송 운영에 있어서 매월 문서선교후원을 위하여 선교비를 지원하고, 현재 92명의 이사진들의 뜻을 같이하여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본지 광주광역시 정민호 상임이사(금호상조 대표이사)는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식사와 유성온천목욕으로 쌓였던 피로를 풀었으며, 전국 지사를 순회하고 있는 다음 이사회는 광주광역시에서 갖기로 했다.

제36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5월 19,20일 개최

전세계 65개국 6000여명 선교사들 참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선교사들이 은혜를 나누고 선교열정을 충전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5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대성전에서 제36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65개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와 가족 등 6000여명이 참석하여, '열방을 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담임목사 등이 강사로 초청돼 대성전 및 부속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대성전에서 열린 메인 행사는 선교사 소개, 우수선교사 시상, 선교활동 보고 및 스크린 방영 등이 진행되었으며, 선교사들은 세계 각국의 원주민 전통의상을 입고 입장했다. 또한 생생한 현지 선교보고와 성공사례를 통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성도들에게 그 간 선교 사역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간증했다. 또한 20일은 세미나 및 해외지선교

회별 모임을 열어 선교사들에게 영적으로 재무장 할 수 있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용기 원로목사는“복음을 통해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전인적인 구원이 되도록 잊지 말고 선교대회를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 되야 한다”며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강력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심을 다하는 전도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교대회에 앞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한울 오크밸리에

서는 선교사 수련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기간 영산수련원에서 원주민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자녀캠프가 열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선교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10년 4월 30일 현재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65개국 727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명인 선교를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의 길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은 문화와 지역,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나날이 그 지경을 넓히고 있다.

임후자 목사(시온성교회) 세계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대표회장 취임예배에서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임후자 목사에게 취임패 전달

세계선교연합회(이하-세선연)는 지난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온성교회 담임 임후자 목사를 세선협 대표회장으로 추대 취임예배를 드렸으며,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임 목사는 시온성교회를 설립한 지 1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세선연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 파송 및 후원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피종진 목사를 총재로 김영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해 취임하였으며, 이렇게 사가 되어진 동 연합회는 2004년 12월 신인환 목사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월에 중국 비즈니스 선

교사 68명을 파송 했으며, 2006년 2월에 세계선교대회를 남서울 중앙교회에서 개최해 대부흥을 가져왔다.

이날 임후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주복규 목사가 기도를, 이동희 목사가 성경봉독을, 권정우 강도사가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어 총재 피종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오순환 목사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했다.

또한 홍사선 목사의 사회로 2부가 시작되고, 총재 피종진 목사는 대표회장 임후자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으며, 이어 임 대표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김영현 목사, 박경화 목사, 이중



대표회장 임후자 목사와 기념촬영을

인 목사, 윤계순 목사, 정순종 목사 박미경 목사 등이 각각 축하와 특별 기도가 이어지고 피종진 목사 축도로 취임행사를 마쳤다. 임 대표회장은 아제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US Henderson 대학원 상담학 박사,

재미 재단법인 WEM선교 협의회 총재, 경남 총회신학교 운영 이사장, 예정총회(개혁총연) 동북노회 부노회장, 한국 복음화운동본부 여교역자 대표회장, 세계복음화 운동본부 여대표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기성 총회,원팔연 총회장 추대·주남석 부총회장 선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가 추대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부총회장에는 주남석 목사(세한교회)가 당선됐다.

26일 오전 전주 바울교회에서 속개된 기성 총회 둘째 날 오후 회무시간에 임원선거가 실시됐다. 총회장 선거에서는 전례대로 현직 부총회장인 원팔연 목사가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신임 총회장에 추대됐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주남석 목사가 여성삼 목사(천호동교회)와 박현모 목사(대진교회)를 누르고 신임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주 목사는 1차 투표에서 915표 중 406표를 득해 293표의 여 목사와 205표의 박 목사에 앞서 1위에 올랐으나, 당선 정족수인 2/3 득표(610표)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박현모 목사의 중도 사임 후 치러진 2차 투표에서 주 목사는 880



신구 임원 교체후 기념 촬영 모습(우측 4번째 주남석 신임 목사 부총회장, 원팔연 신임 총회장, 권석원 전임 총회장, 권중호 신임 장로 부총회장)

표 중 526표를 획득, 346표를 얻은 여 목사를 눌렀으나 역시 2/3 득표(587표)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 목사가 교단의 화합을 위해 후보직을 사퇴해 3차 투표 없이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단독 입후보한 장로부총회장에는 권중호 장로(이천동부교회)가, 서기에는 조재수 목사(길교회)가, 부서기에는 정덕균 목사(당진교회)가, 회계에는 이일재 장로(중앙교회)가 무투표 당선됐다.

원팔연 신임 총회장은 “총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결가족들의 힘이 있다면 현재 당면 어려움과 시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바울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룬 열정과 헌신으로 성결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주남석 신임 부총회장은 “교단의 화합과 일치에도 힘쓰며 성결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전주에서 뉴스미션

기독교 연예인 부흥사 선교 협의회 집회일정



강신숙 목사
사론교회 담임
강신숙 문화예술신학원장



장봉섭 장로
사론조경 대표

방글라데시 지사(박해군 선교사), 태국 치앙마이 지사(전승주 선교사) 지사장 임명 감사예배

일시 : 6월 5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구로 열린찬양교회 / 축 성시 축가 : 강신숙 목사 찬양 간중 말씀 율동 연주 부흥성회

일시 : 6월 7-10일(월 ~ 목) / 장소 : 서초 부광교회(담임 정영성 목사) 011-9913-2468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 위한 콘서트

일시 : 6월 22일(화) / 장소 : 삼산체육관(유한나목사) 설교 - 신현목 목사 / 축도 - 이만신 목사 / 축성시.축가 - 강신숙 목사

6.25 삼기 60주년 기념 추모찬미제

일시 : 6월 25일(금) / 장소 : 바위샘교회(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

이카페 프로젝트와 함께(최재창목사 02)363-0103 017-390-0103)

수정영성훈련원개원 감사부흥성회

일시 : 7월 12-14일, 9월 27-29일, 10월 11-13일

/ 장소 : 수정영성훈련원(담임 백중천 목사) 010-3679-7179

농아선교를 위한 찬미부흥성회

일시 : 8월 23-26일(월 ~ 목) / 장소 : 농아교회(박용숙)우솔초 목사 011-775-5154

필리핀 이경철선교사 후원콘서트

일시 : 9월 9일(목) 오후 3시 ~ 7시까지 / 장소 : 서초교회 서초아트홀 (02-3477-1445)

일일부흥성회

일시 : 10월 19일(화) / 장소 : 평택 찬양중앙교회(김경목 목사) 010-2440-1861

성전수리축복감사부흥성회

일시 : 11월 1-4일(월 - 목) / 장소 : 인천천양치유교회(담임 유한나 목사) 010-7743-1757

년말년시 이웃돕기 크리스마스콘서트(강신숙 목사 음반(23-25)출판 기념)

일시 : 12월 14일(화) / 장소 : CTSO트홀 대강당(강신숙 목사) 010-9049-4846

강신숙문화예술신학교후원회장 사론조경대표 장봉섭 장로(010-6206-4846)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창립 27주년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1.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2.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3.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모상련 담임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 일	예 배	시 간	장 소
주 일	낮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수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금요일	금요일예배	저녁 9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매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월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토요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토요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롭방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2회 오전 11시 30분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3층 아동센터 3,4층 대 예배실
토요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영어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위기와 상황에서

성경 : 시편 70편 찬양 : 446장

본시는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나의 도움은 처음도 하나님이시오 마지막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시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첫째도 둘째도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힘으로

성경 : 시편 71편 찬양 : 542장

본시는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작 배경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고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며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선순위

성경 : 시편 72편 찬양 : 486장

본시는 솔로몬의 시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통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그이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정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기도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성경 : 시편 73편 찬양 : 478장

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한때나마 실의에 빠졌던 시인은 하나님이 결국 선 악간에 공의의 심판을 배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리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1절-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겹짐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세상적인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나 아님을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고통

성경 : 시편 74편 찬양 : 505장

본시는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은 훼손되는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민족적 위기 상황을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며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물질과 건강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

성경 : 시편 75편 찬양 : 162장

본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의인의 승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예고에 대해 시인은 감사 찬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까움' 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우리들의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인본주의 VS 신본주의

성경 : 시편 76편 찬양 : 342장

본시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승리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자들을 위협하며 대적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5절을 보면 "머슴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하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의 최종적인 운명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자기 힘만 믿고 하

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성경 : 시편 77편 찬양 : 487장

본시는 극심한 환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심적 갈등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인 자신이 이제껏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밤중과 같은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자신은 계속 하여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디딤돌 삼아

성경 : 시편 78편 찬양 : 447장

본시는 출애굽 시대로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즉 시인은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함으로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려 72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과거와 실패의 경험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시인의 노래를 통해 실패의 역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 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성경 : 시편 79편 찬양 : 359장

본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 멸망한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패허화된 현실을 진술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가정입니다.

기도하고 당당하게

성경 : 시편 80편(1) 찬양 : 478장

본시는 제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비극을 인하여 아삼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민족예가입니다. 시인은 이

방 원수에 의한 선민의 자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참상이 눈물, 비דות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민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경 : 시편 80편(2) 찬양 : 460장

본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략을 당해 멸망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포도나무를 심고 가져가시고 쫓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 그 다음을 기대하라

성경 : 시편 81편 찬양 : 542장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며 하나님의 위대한하신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치 말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결과는 16절을 통해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식에서 나오는 꼴로 너희를 만족케 하리라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순종 그다음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성경 : 시편 82편 찬양 : 457장

본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실현을 인간 통치자들에게 위임하신 만큼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불의한 재판관들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며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을 되겠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박영남

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인육의 냄새 자욱한 도심,
속된 인연 버리고
또 다른 속세를 향해
꺼져져 상처받은 것들 속으로
들어간다

조용히 죽음 기다리는
도살장의 가축들과
거미줄에 걸려 퍼덕이는 나비와
그리움에 사슴처럼 목이 늘어진
산지기 집 소녀
떠나간 자식을 기다리다
눈물에 젖어 짓무른
노인의 침침한 눈과
지렁이처럼
반도막으로 잘려진 몸통이 끌고
시장바닥을 배로 기어가는
영벌이 청년과
석양 언덕에 쓸쓸히 서 있는
포플러의 긴 그림자

반세 쏟아지는 여름 정마 빗소리와
버려진 채 해 묵은 구석방에
먼저 수북이 쌓여 잠들어 있는
그 날의 우리들 아픈 기억
이런 숙명적인 슬픔 견디리라
그들 속으로 나는 간다

파멸할지언정 절망하지 않는
시지프스의 땀에 젖은 노동과
신음하며 독수리에 쏘아 먹히는
프로메테우스의 간과
다량버린 몽당연필과 함께
소멸된 우리들 짧은 날의 사랑

가을어져 가는 고향집 기둥과
수많은 발자국이 뻗 땃듯
파랗게 이끼 돋은 기와지붕과
상처투성이의 문지방과
잠긴 문고리의 침묵
그 때, 버리고 떠나와
오래토록 멈추어 버린 벽시계에
태엽을 감으려 간다

행여, 텅 빈 환벽의 확인이거나
내 희망에 대한 배신의 톱질일망정

나는, 다시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

도심속의 실버타운 사랑의 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노인장기요양(주·아간 및 단기보호)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3층
전화 : 032)525-2838, 204-2838, H·P 010)4423-2838
사랑의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102-13
전화 : 032)524-6884 팩스 : 032)508-2838 h.p : 010)4423-2838



치매,중풍,노환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이리신을 모시는 사랑의집입니다.
현대식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 내 부모분께 효도하는 마음, 저렴한 비용으로 모십니다.
입원시설 unlike 어르신들 앞에서 모시고 모셔다 드립니다.
인터넷 '인천닷컴'에서 '치매'나 '중풍' 검색 (www.saranghouse.com)

■매주 회,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노숙자쉼터·무료급식)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자립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많은 후원들이 있습니다.
노력봉사:간병 청소, 목욕, 말벗, 급식, 의류통행 등
전문봉사:아·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철성서수련원)

www.scogop.net

성령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철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
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라"(행13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철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세계치유선교센터

(www.twhmc.kr)

원장 민충만 목사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JTN방송, 본지 부사장)
매일치유집회 2회 : 오후 2시 / 밤 9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24-4
(태희프라자 3층)
대표전화 : 032)329-9182
010-9282-5873, 010-8376-2476

▶부천전철역(북광장)에서 서틀버스 수시운행
▶부천 소풍터미널 서틀버스 수시운행
서틀버스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니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치유선교센터 개원예배 기념촬영)



국제선교신학연구원 (주님의교회)

담임 박현주 목사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67-6
♥항상친절한 전화상담
042)847-4711 / fax 841)4700
♥H.P 011-6755-1175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 장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010-4436-7060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의 5대 원칙론에 대한 비판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에 대한 ‘바른 성경’(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Bible)의 평가



손기태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Peacelake Christian University(신학박사)
바른성경선교회(바른성경출판사) 대표
TR원문 요한계시록 주해 외 70권 저서

1.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은 처음부터 옳기는 성경

한국에서 ‘바른 성경’이란 성경 명칭을 처음 사용한 단체는 한국 성경공회가 아니다. 1993년에 바른 성경 선교회가 바른 성경(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Bible)을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될 당시 당국에 출판사 등록을 할 때 사용된 명칭 ‘AVA 바른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이 단체의 정관에는 ‘바른성경’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른성경’이란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전통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시12:6~7) 구약은 벤 카임 맛소라 본문(Ben Chayyim MT), 신약은 헬라어 공인원문(Textus Receptus)으로 보존되었고, 독일어로는 종교개혁성경인 루터성경, 영어로는 킹 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으로 보존되었음을 믿으며 우리말 한글 성경도 이 계통으로 번역 ? 보급되어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성경만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통원문에서 번역되지 않은 다른 모든 성서(聖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그런데 한국성경공회(이하 KHBS)에서 출간한 성경은 하나님의 전통원문(Traditional Text)계열에서 번역된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바른성경’이란 명칭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II. KHBS의 옳기는 ‘바른성경’들

KHBS가 1993년 대한성서공회(이하 KBS)가 ‘표준새번역’ 성서를 출간하자 이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KBS에 6개 항으로 된 비리를 지적하고 이것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보수 교단을 중심으로 KBS를 탈퇴하여 바른성경 출간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가 KHBS이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전통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을 출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옳기는 성경’을 출간하는 단체로 KBS와 동일하게 전락되는 아쉬움을 남기게 했다. 그것은 ‘바른성경’을 출간할 목적으로 KBS를 탈퇴한 단체인 KHBS가 하나님의 전통원문이 아닌 계통(RV)의 성경을 번역 출간하면서 ‘바른성경’이란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른성경’이 옳기는 성경이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것이다.

(1) ‘성경’(갑수, 견본용, 1993년 7월 30일 발행) 이 ‘성경’은 KHBS가 창립하면서 최초로 출간한 성경이다. 이 성경은 강단용 성경이 아니고 주석 성경이었다. 이 성경의 머리글에는 1952년판 개역본(Revised Version)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판 흠정역(King James Version)이라고 옳기는 말을 했다. 이것이 처음 옳기는 성경의 시작이다.

(2)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성경’(1996년 9월 16일 발행) 이 성경은 KBS의 저작권 시비로 인한 재판에서 패소되어 출간 금지 처분을 받았다. 참으로 옳기는 일이 아닌가? ‘바른성경’을 출간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단체에서 먼저 출간한 성경의 저작권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불법을 어떻게 범할 수 있는나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을 웃기게 했던 것이다.

(3)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2007년 12월 25일 발행)

(4)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성 경	개역개정 · 바른성경	킹 제임스 흠정역
마 12:31	성령(Spirit)	성령님(Holy Ghost)
마 25:31	천사들(angels)	거룩한 천사들(holy angels)
요 7:39	성령(Spirit)	성령님(Holy Ghost)
행 6:3	성령(Spirit)	성령님(Holy Ghost)
행 8:18	성령(Spirit)	성령님(Holy Ghost)
고전 2:13	성령(Spirit)	성령님(Holy Ghost)
엢 4:30	성령(Spirit)	거룩한 영(holy Spirit)
살전 5:27	형제들(brethren)	거룩한 형제들(holy brethren)
벧후 1:21	사람들(men)	거룩한 사람들(holy men)
계 18:20	사도들과 대언자들(apostles and prophets)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holy apostles and prophets)

큰 글자(2009년 4월 30일 발행) KHBS는 2007년부터 ‘바른성경’이란 명칭을 새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이 바른성경은 ‘옳기는 성경’이 되어 버렸다. ‘바른성경’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이 만들어야 ‘바른성경’이 된다. 겹표지를 아름답게 포장한다고 해서 ‘바른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다. 곧 바르지 않은 ‘바른성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최종권위 ‘진짜 바른성경’으로 대조하면 ‘가짜 바른성경’은 즉시 들끓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KHBS는 이것을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 17억이나 되는 거액을 소비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III. ‘바른성경’의 옳기는 내용들

(1) 잃어버린 500년, 잃어버린 500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2007년판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머리글에 성경 기록의 시작은 약 3500년 전부터 1000여년 동안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9년 도판 큰 글자 ‘바른성경’에 와서는 1500여년 동안이라고 기록하므로 불과 2년 사이에 500년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록자들의 작은 실수로 간과하지만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는 보수주의 성경신자들에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성경 첫 머리글의 작은 실수가 그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온전 영감에 회의를 초래하므로 독자들의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작은 실수가 곧 성경 본문에도 오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40년(forty years)을 → 4년으로(삼하 15:7) ② 70명(the seventy)을 → 72명으로(눅 10:17) ③ 3년(three years)을 → 3일로(암 4:4) ④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을 → 신들이 아들로(단 3:25) ⑤ 한 천사(an angel)를 → 독수리로(계 8:13) ⑥ 루시퍼(Lucifer, 사탄)을 → 계명성(예수님)으로(사 14:12) ⑦ 책(the book)을 → 나무로(계 22:19) ⑧ 13곳의 절이 없음 → 마 17:21, 18:11, 23:14, 막 9:44, 46, 11:26, 15:28, 눅 17:36, 23:17, 행 8:37, 15:34, 28:29, 롬 16:4) (*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음)

(2) ‘바른성경’ 다섯 가지 원칙의 거짓말, ‘바른성경’ 머리말에 번역 원칙 5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① 바른 신학 ② 바른 교리 ③ 바른 번역진 ④ 바른 언어 ⑤ 바른 번역, 바른 대본이 그것이다. 겹으로 보기에 모두 훌륭한 원칙이다. 하지만 내용을 엄밀히 검토해 보면 다섯 가지 원칙은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손기태 저, ‘개혁의

개약이다’ pp.108~119)

(3) 영감이 없는 ‘바른성경’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Inspiration)이란 단어이다. 영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른성경 2007년 판에는 신약성경에 단 1회 밖에 없는 단어인 영감을 ‘하나님의 감동’이라 번역하고 구약의 엘리야의 영(spirit)을 ‘영감’이라 번역했다(왕하 2:9). 폐일언하고 바른성경은 이 구절 한 곳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많은 변명이 필요치 않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9년도 판에는 이 두 곳의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았다. 도대체 이런 성경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2년 전에 없던 ‘하나님의 영감’이 갑자기 쉽게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2007년 바른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2년 후에는 다시 바른성경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2009년 큰 글자 ‘바른성경’은 2007년도 ‘바른성경’의 ‘개정판’이 분명한데도 KHBS가 이 사실을 속이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교리’(doctrine)가 없는 ‘바른성경’ 신약성경에 21회 기록되어 있는 ‘교리’(διδασκαλᾰ)라는 단어를 모두 ‘교훈’, ‘가르침’(teaching)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바른성경’에는 교리라는 말조차 없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바른성경의 바른 원칙 제 1조항에서 ‘바른 신학이란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전제한 바른 교리에 입각한...’이라고 운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성경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바른성경에는 성경의 영감, 바른 교리, 성경무오, 바른 양심 같은 ‘바른성경’의 근본이 되는 중요 단어를조차 없기 때문이다.

(5) 바른 대본이 없는 ‘바른성경’ ‘바른성경’ 2007년판의 바른 대본으로는 구약은 BHS, 신약은 TR(Textus Receptus) 영어는 ESV와 NIV 등을 참조본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2009년 판에 와서는 TR을 빼고 NA판으로 교체했다. 도대체 이런 배교관 원문을 대본으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바른성경’이라 하니 참으로 옳기는 성경이 아닌가.

(6) 개역성경의 신학과 신앙과 정신을 대물림한 ‘바른성경’ 1993년에 KHBS가 KBS를 탈퇴할 때는 한국에 ‘바른성경’을 출간하겠다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런 단체가 1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72,712 곳이나 성경을 변경시킨 KBS의 신앙 정신을 계승하고 그들의 성경을 대물림하는 번역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 변질되어도 너무 빨리 변질된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변질된 단체에서 만든 성경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을 가리켜 ‘옳기는 근본주의의 자(Funnymentalists)’라고 부른다.

(7) ‘거룩’이 없는 ‘바른성경’ 바른성경의 5대 원칙의 결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적절함을 쓰셔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고 찬양합니다.” ‘옳기는 근본주의자들은 옳기는 말로 스스로 위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용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자를 사용해서 영광 받으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교훈’, ‘가르침’(teaching)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바른성경’에는 교리라는 말조차 없다. 부

적절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망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음 두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벧후 1:21)

? 흠정역 /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 /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두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후자의 경우는 앞서 말한 사람들의 경우이다. 성령님의 감동은 오직 극소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에는 거룩한 성령님의 감동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바른성경’이라고 옳기는 말을 해도 그저 웃고 넘어가 버리는 한심스러운 세상이 되어 버렸는지 모른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잠 15:2).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거룩’이라는 소중한 단어를 그들 성경에서 삭제하므로 변개된 성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른성경’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도 부적절하다는 결론이다. 옳기는 성경은 옳기는 사람을 만들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 때문이다(벧후 1:21).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성령님의 감동 받은 거룩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성경 첫 머리에서 그런 망령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거룩’은 성경을 만드는 일보다 훨씬 우선되어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의 최상의 언어인 것이다.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릴 수 있음
주일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철야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기정	매일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1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1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대광교회 담임 엄영수 목사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409-10
TEL 031-384-6826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JTN방송 논설위원)
부설/평안 E.C.I
-무료 생활영회화 강습,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상설 일물바자회 주관/여전도회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평안교회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천국복음을 증거합니다.
죽은 영혼,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확신합니다.
참 진리의 목마름을 느끼는 곳에 찾아갑시다.'*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www.christianphoto.co.kr

KCPA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목회자를 비롯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사진가 협회입니다.

(당신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 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회장 **이성중** 목사(전주 새음전교회)

대한예수교 **광성교회**
장로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권동 661-1
☎ 031)373-1151, 377-9372 팩스 031)372-2583

목회자칼럼

6. 임시노회

1). 임시노회의 필요,

개인의 생활에도 예기치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일어나, 본래 예정했던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면서까지,「이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일어난다고 하면」 많은 지 교회와,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등을 거느린 단체생활(노회생활)에는, 더욱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시일을 천연(遷延)하면 천연할수록 악화되어, 지 교회에 많은 손해를 끼치게되고, 속히 해결하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큰 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기 노회가 회집하는 기일이 멀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지 교회가 받는 손해를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임시회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모든 안건은 회원이 원만히 참석하는 정기 노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임시노회는 상비부가 모이지 않고, 의안에 대한 예비심의가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졸속처리하기 쉽다. 그러므로 임시노회는 그 소집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임시노회의 안건.

그런데 전항과 같이 예기치 못했던 긴급사건이 생겨, 임시노회를 소집함에

관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노회에 상정되는 재판사건이라면, 우선 당회 재판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말미암는 소원건이나, 상소 건이요, 또는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이요, 그리고 당회가 요청하는 위탁사건 등이다. 만일 임시

회를 당하게 된다. 그런즉 교인에 대한 원 처리 권을 지닌 당회의 결정은, 적어도 한노회 기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치리회의 결정이든지 그 결정을 절대시할 것은 물론이나,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판결한일을, 자율적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부당한데, 더구나 상회의 직권에 의해 반복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하회 권의 침해요, 고유한 특권에 대한 유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임시회에서 재판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요, 또 사실상 다룰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권 제 9장 제 85조, 제 87조, 제 96조 등 참조).

다음호에 계속

목회자가 알아야할 교회 법률(敎會法律)(4)

(목회자가 역올한 지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만국 장로회가 통용(通用)하는, 교회정치문답조례에 의하면,“재판사건(裁判事件)은 임시회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좋고, 특별한 증거(證據)가 있어 당시에만은 가능한데, 정기회 때에는 소멸(消滅)될듯하면, 혹시 임시(臨時) 회에서도 다룰 수 있느니라”(정 제 382문 참조).고 하고 있다.

①. 임시회에서까지 재판사건을 심

판회에서도 상소 건이나, 소원 건 등 재판사건을 취급하게 한다고 하면, 당회의 판결이나, 결정이 한노회 기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10여 일이면, (10일 선거 통지 규정에 의해) 반복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만일 이렇게 되는 경우 당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요, 위신도 체면도 아주 손상을 입어, 치리회의 질서도, 신성도 오히려 훼손



선 공문서 또는 각종 보고서를 작성, 이러저런 계획을 수립했다. 퇴임을 하고 신문에 기고하고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가장 짧은 글로 정확한 의도를 표현하고, 가장 쉽게 전달 능력을 가진 글이 좋은 글이다. 이런 능력

있다. 이것을 돕고 회생을 감수하며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선과 義人의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면 세계최상의 나노 기술을 개발, 국위를 선양한 삼성의 패거, 한국인이 처음으로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된 반기문 총장이야기는 기쁘다. 한편 비평화적인 핵, 미사일 시험이란 호전성에 대한 기록은 세계인의 미움을 사는 글이다.

글에 대한 음미(吟味)

김계홍-2000년(옥로문학)등단, 한국공무원문학협회 신인문학상, 제11회 수필 '인생의 시간표'로 등단, 제주영주문학회 회원, 전 제주시부시장

은 선천적인 소질과 후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독서를 하고 다방면에 경험을 쌓고 바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글을 쓰기마련이다. 현대는 펜으로 쓰는 수필가 아니라 컴퓨터자판기를 쳐서 쓰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컴퓨터는 수정이나 저장도 쉽다. 상대방에 대한 전달도 인터넷을 통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나는 언론이나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취사선택하여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

거기엔 교통 받는 약자의 서글픈 처지도 있다. 공공유희 등 부정부패나 국부를 날린 내용도 있다. 인간수심의 범죄, 폭행이나 패륜, 악질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선거철이면 거짓말과 돈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부정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존재를 생각하게 한다. 종교를 통하여 마음을 비우고 신뢰를 쌓는 귀중한 덕목을 알면서 그렇게 못함을 자탄한다. 사람은 누구나 장수하려 하지만 100년을 못 넘겨 죽는다. 오래 살면 신체를 구속하는 질병이 앞을 막는다. 그런대도 노욕의 노예가 되어 죽음이란 엄숙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이중에서 죄를 지어도 유전죄로 혹은 시 빠져 나가는 수도 있다. 저승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지만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루도 빠짐없이 범죄와 부정을 판을 치는 기사로 신문이 가득차지만 자

淨의 양상은 부족한 것 같다. 글을 매개로한 문화와 예술이 나오고, 명문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정화운동이 전개 일등도민, 새 역사의 견인차역할을 다 하게 했으면 좋겠다. 글을 쓰다보면 진리를 찾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지혜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기록은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기록이나 나쁜 기록이나 그만큼 역사에 기여하는 것은 같은 비중이라고 본다. 이런 유산은 글을 통하여 남기자! 그 대상은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 가문, 사회, 국가를 대상으로 쓸 수 있다. 글 한 줄로 제도를 제도를 개혁하고,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례는 드물지 않다. 한국의 일제 치하에서 '독립선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새마을정신의 제창으로 '하면 된다'는 의식개혁으로 국운을 개척했다.

중국역사에 나오는 제갈공명의 출사표, 독일 괴테대 장군의 “독일국민에게 고향”이란 명문을 통한 국민단합과 계몽,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선언”에 의한 자유의 정치, 덴마크 그룬트비히의 ‘국민이여 나라를 사랑하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자. ‘동달 가스의 명언’ 밖에서 잃은 땅 안에서 찾자. ‘무기로 잃은 땅 농구로 찾자’는 구호로 국민을 계몽한 말과 글 등이 그러하다. 글 쓰는 일에 우리 모두가 苦樂을 맛보자. 글쓰기와 글 읽는 귀중함을 깨닫고 있다. 좋은 글은 좋은 책 읽고 그런 글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음미하는 것이다. 나의 졸필이 다소나마 인생을 영그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2010 월드미션협의회 임원취임예배

이선 목사(핵심교회)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성민교회(김유정 목사)에서 2010 월드미션협의회 이사장에 추대되어, 대표회장 김유정 목사, 연수원장 주광석 목사, 대표회장 김영관 목사, 여성대표회장 이옥자 목사 등이 취임식을 가졌다.

총 본부장 이수재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이용철 목사(부총재)가 기도, 김성광 목사(부총재)가 성경봉독, 이인순 전도사(총무), 이철선 전도사(총무)가 특별찬양, 연수원장 주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김용남 목사(공동회장)가 찬양, 주화순 목사(부총재)가 헌금기도를 했다.

이날 연수원장 주광석 목사는 20년 전에 이선 목사를 비롯 4명의 목사가 월드미션협의회를 조직하자는데 뜻을 모아 합 의하고 동두천 밀알교회에서 300여 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린 후에 밤을 새워 철야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제1의 물결은 평양에서 제2의 물결은 60~70년대 초교파적으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은사중심의 부흥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교파의 벽이 무너지고 신학사상에 묶여 있다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제3의 물결은 양적성장을 이루면서 질적인 것이 필요하여 80년대에 들어가면서 제자운동이 활발해 졌는데 90년대에 들어가면서 불이 꺼지기 시작,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됐다.

이후 찬양과 경배운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2000년에 들어서 계속하여 마이네스 성장을 하고 있다. 개척교회가를 달고 2교회내지 3교회가 합하여 하나의 교회가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시점에 이제 제4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



는 유럽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다. 성전이 술집으로 바뀌고 강대상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vip 대접을 받는 현실에 빠지게 된다.

“행1:8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예수 이름을 사용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월드미션 모든 회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이만신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한국 뿐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하며, 자기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권면 했다.

이어 이사장 이선 목사는 어느 단체의 장도 맡지 않았던 김유정 목사가 월드미션 총재가 된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6.25 성회 준비, 7월 둘째 주 오산리기도원 집회, 8월 9일 경기 광주시 실촌수양관에서 청년 1500명과, 장년 1000명(합 2500명)이 연합으로 드리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 고 축하를 했다. 대표총재 김유정 목사는 월드미션 총재로서 맡았으니 열심히 하겠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성순희 기자(cpj01@naver.com)

약수동교회 설립55주년 기념행사



약수동교회 공수길 목사

서울시 중구 신당2동 432-1621 소재 기독교 대한성경교회 약수동교회(담임 공수길 목사)는 지난 5월 23일(주일)오후3시 창립 55주년을 맞아 원로장로 추대 1명, 장로장립 3명, 명예권사 추대 16명, 권사취임 18명 등이 임직을 받았다.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중형교회로 우뚝 선 약수동성경교회는 담임 공수길 목사 인도로 진행되어진 예배에 서울지방 부회

장 이일재 장로(중앙교회)가 기도를, 동부회장 지형은 목사(성락교회)가 성경을 봉독하고 약수동교회 연합찬양의 “나의 생명드리니”란 찬양이 있었으며, 동 지방회장 김 곤 목사(창성교회)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부에서 임직식이 진행되어 조성용 원로장로가 인사말씀을 전하고, 3부에서는 축가와 권면, 축사와 답사가 있는 후 교회대표 윤일선 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이만신 목사(경중총회장, 중앙교회 원로)축도로 마쳤다.

교회 매매 및 임대

소재지 : 대전광역시 (APT 8천 세대 밀집지역)

예매당 : 3층 사택 (30평)

2층 50평 (250석)

1층 사무실 및 기타용도(55평)

지층 교육관 / 식당 (55평)

매매 및 임대를 원하며 조건에 따라 임대

사용기간은 넉넉하게 책정가능

매 매 : 5억 5천(은행융자 3억 가능)

임 대 : 보증금 1억 / 월 70만원 (시설 완비)

연락처 H · P 010-5168-5024

☎ 042)252-740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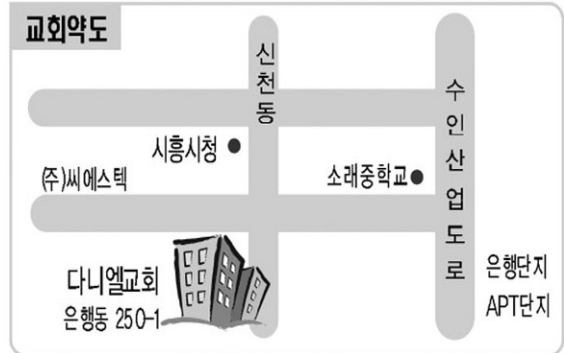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학기적인 말씀축복 [전도 집중, 말씀 집중, 특별집회]

부흥회+전도집회+재직세미나+교사세미나+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 확실한 동기부여
-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전국 교회 기도회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 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성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 **구원론**

죄인 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으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 다. 죄는 없으시나 죄인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소리는 온 세상의 죄를 속하시려고 뿌린 피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뿌리신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억울하게 죽어 땅에 흘린 피요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이나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억울함을 호소함도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

물을 담아 쏟을 때는 물을 흘린다고 아니하고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즉 전자에 물을 흘렸다 할 때는 물을 쏟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겠고 후자에 물을 뿌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물을 그릇에 담다가 쏟았을 때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라는 말씀은 창1:3부터 시작된 오시라라 하신 예수그리스도께서 그 예정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사랑)대로 오직 순종으로서 의도적으로 작심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쏟으신 뿌린 피라는 말씀이며(마20:28, 요10:1-18, 요15:7-12) 더 낮게 말한다는 것은 전에 말

예수님의 보혈 V-3

함도 아니요 오직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땅에 흘리시기로 예정되었고 약속하신 피 이기에 뿌린 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다 와 피를 뿌리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피를 흘린다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물체에게 가해를 입어난 상처에서 피가 날 때 피를 흘리다. 라고 말합니다. 피를 뿌리다의 말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피를 뿌린다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 물을 담고 건다가 흔들려서 물을 쏟을 때는 물을 흘렸다 합니다. 하나 마당이 건조해서 그릇에

쏟았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함이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한 점 흠 없고 점 없는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시라 간구하시는 피 소리인 것입니다.(롬8:34, 히7:25, 요일2:1-2)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임마누엘선교회



· **건강칼럼**

기독교상담과 성경적상담

“누가 사람을 다루는 전문인인가?”를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고 있는 우리가 전문인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만 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되 분명하고 확신하며 또 세상 만물 속에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더더욱 특별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여진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더욱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과서인 성경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와 충분성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느냐 하는 것이다. 복종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와 같이 오늘날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상담자들이 말하고 있는 심리이론에 대한 내용이나 심리학이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로서는 옥성호 형제의 출판물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부흥과개혁사를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다루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에 대한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루고 싶은 열망이 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은 옥성호

신도이면서 한 목회자의 아들이 한국교회에 던지는 통찰력 있는 작은 질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문이 목회자나 교수가 아니라 평신도가 던진 질문이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미국에서도 삼십수년전에 Martin Bobgan 이라는 평신도가 미국교회를 향해 던졌던 많은 통찰(Insight)들이 미국

3. 성경적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차이

형제의 통찰력은 한국교회와 교계에 적지 않은 도전을 주는 것이다.

특히, 심리학에 대한 성경적인 비판과 생각들 그리고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심리학의 형태와 이론들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물론 일반 성도들도 꼭 한 번쯤은 필독해야 할 상담학 입문서로서 추천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 붙는 듯한 열정은 귀한 형제로 하여금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만든 원동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그의 글이 다소 거칠고 혹은 교회에 대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귀한 외침이라 생각이 되어진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옥성호 형제의 개인의 견해만은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해야만 하는 작은 생각을 아무도 외치는 사람이 없는 이 시기에 적절하게 도전을 던진 것이다. 특히 옥성호 형제의 작은 출판물이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평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도왔던 것처럼 옥성호형제의 작은 글은 심리학이나 기독교상담학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에 대해 잘 지적해주고 있는 입문서로서 좋은 글 이기에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씩은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현대의 교회가 말씀의 능력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기능 중에 사람의 삶을 다루는 목회의 현상이 파괴된 것에 대한 원인을 조금 심각하게 관찰해보면 그 성향의 원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목회의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다루었던 목회자들의 역할이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도와 목회자와의 교감이 사라진 것도 작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이것들의 영향으

로 교회는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프로그램공동체로 발전함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보다는 또 다른 목회의 조력자들이 됨으로서 목회의 순수한 영역을 침범했기에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로페셔널리즘의 영향을 타고 들어온 정신심리학적 영향들이 교회안에 미친 영향들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세대가 현재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없이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사용하는 분별없는 사용이나 혹은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신들의 이론이나 사상 혹은 목적과 부합하다면 언제든지 타협하면서 새로운 이론이나 프로그램인 것 처럼 사용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행위들은 현대 교회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대화의 기술” “소통의 기술” “자녀 양육의 기술” 등등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인도의 신비주의 혹은 힌두교의식이나 기법에서 발생했던 아류들을 기독교교회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는 기법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김주원 박사

말교 및 악물 전문 상담사
본지 성임운영이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음식은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한다! (20)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마6:17)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러나 심신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몸이 아프고 전혀 식욕이 없을 때는 안 먹는 것이 상책이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식음을 전폐하는 것도 일종의 신체 보호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동물은 병이 나거나 부상을 당하면 감식 또는 금식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동물에 따라서는 주변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적응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장기금식(동면)에 들어간다. 사람만이 병이 났을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 평소보다 평소보다 더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 같다.

현대 성인병의 70%가 잘 먹어서 생기는 식원병(食原病)임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식욕부진이라면 무조건 보약이나 보신식품을 과량으로 복용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먹어서 생긴 병은 먹지 않음으로 회복된다는 원리는 결코 논리의 비약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체는 자체조절기능을 가진 유기적 시스템이다. 인체는 내부적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강력한 경고를 발한다. 다만 말이 없을 뿐 증상으로 표시한다.

식욕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비상사태에서 음식물이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음식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위장관계로 보낼 혈액을 다른 위급한 곳에 보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함으로 신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먹는 것의 우선 순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음식물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법 중의 하나이다. 히포크라테스나 갈렌 등 저명한 의사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단식처방을 했으며 수많은 종교가, 철학자들이 정신적, 도덕적 수련을 위해 금식을 해왔다.

세계의 장수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 국민은 금식에관한 한 3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의 최고급 건강관리센터에서도 건강 및 미용을 위해 금

식을 활용하고 있다.

금식은 타성에 빠진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충격요법이다.

이른바 인체는 자극을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정상화 작용이 인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극대화되는 것이 금식의 효과이다.

즉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인체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정상화 작용에 의해 인체의 저항력은 강화되고 자연치유력은 극대화된다.

오랜 세월에도 걸쳐 축적되어 온 노폐물은 배출되고 잉여물질은 에너지의 공급을 위해 처리된다.

특히 위장관과 혈관 등에 있던 불순물

이 제거되므로 소화기 및 순환기 질환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으며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난치병을 금식으로 고쳤다는 많은 사례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무분별한 식생활과 환경공해, 운동부족 등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해야하는 현대인의 심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카드가 아닐까?

그러나 무분별한 금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자신의 상태에 맞게 금식기간과 금식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금식 중에는 신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수를 계속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회복식의 기간에는 금식기간 못지 않

게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식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식을 오래하거나 자주한다고 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구제 및 기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언급하고 계신다(마6:16-18). 또한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머리에 “재(슬픔의 표현)” 대신 “기름(즐거움의 표현)”을 바르라고 하심으로 금식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조명하셨다.

하나님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은 물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금식은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황성주 박사 저 “성경 건강학” 중에서

한국뮤지컬대상 4개부문 수상작 | 뉴욕뮤지컬시어터 페스티벌(NYMF) 공식초청작

브로드웨이가 선택한 뮤지컬! 브로드웨이가 극찬한 그녀!

마리아

Musical

소녀의 **마리아**

대본/작사 우혜정, 작곡 차경찬
Original Art Director by Choi Moo Yeol, Directed by Seong Cheon Mo

5월 18일 ~ 7월 4일 명보아트홀 가온홀

티켓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예매 | **맥스티켓** 1544-0113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제작 | **JOA** musical company **조아뮤지컬컴퍼니** **명보아트홀** 제작투자 | **CJ** **창원투자** **신보중합투자**

협찬 | **동방방산** **53** **이온미내추럴한의원** **Chick Lit** **W** 후원 | **PSYCHO** **SOLUDENS** **LS** **이마트** **ICBank** **ann's** **AB** **신신보에이드**

정준명, 이재규, 복진선, 정우영, 남기열, 김학진

단체관람 할인 문의

성가대, 청년부, 구역(교구) 모임 등
※조아뮤지컬컴퍼니 02-584-2421~2

예수_이필승
예수_조지훈

마리아(입터)_류승주

「리치부동산 경제연구소」 “기도하며 선교하는 양기선 집사”



소장 양기선 집사

개척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한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 회장 양기선 집사(연세중앙교회),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를 하게 된 동기는 형편이 열악한 목회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드려 신바람 목회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양 회장(집사)은 오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은 결혼하기 전 폐결핵으로 심한 고통을 앓았던 때였으며, 때론 길을 가다가 하수구에 피를 토하는 등 인생 2/3를 잃은 듯이 탈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 건강하고 슬하에 3 자녀의 자랑스러운 가정이다.

양 회장은 당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삶이 늘 행복하기만 했다. 예수가 너무도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잘 수 없기에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다시피 했다고 말한다. 또한 적지만 사업가의 길을 가던 중 부도가 나 아내와 신희 초에 갑갑한 지하실 햇빛도 없는 지하방을 월세로 들어가 살았다. 그러나 다시 몸이 안 좋은 상태였으며, 모든 게 어려웠다. 하지만 한번 얻은 기쁨과 감사로 자신은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가 기도드리고 그 행복감은 연약한 중에서도 너무도 기쁘고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부동산 직업이었고, 처음에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른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나 물씩 경험을 쌓아가면서 큰 돈을 번다는 것보다 부동산 정보의 흐름을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노트에 필기해 가며 노하우를 쌓아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정보에 민감하게 대처했던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게



이전 토지 상황도

되었고, 미래가 보장되는 곳 역세권 개발지역 좋은 요충지를 찾아내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땅을 넘겨드리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손실을 보았던 때도 있었다. 결국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로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가 우뚝 서기까지 성과를 가져 온 것이다.

부동산은 짧은 시간 안에 미래가 밝은 요충지를 찾아내어 토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강행군 할 수 밖에 없다. 좋은 땅, 논과 밭을 매입해서 땅을 찾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양 회장의 경영철학이라고 말한다.

특히 양 회장의 사무실을 찾아 온 분들 중에는 그러한 자금을 활용해서 크게 한 몫을 잡아 보겠다는 목표가 있다. 사실 사무실을 찾아온 분들 100명 중에는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있다. 양 회장의 뜻은 돈을 벌어서 섬기는 교회에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단체에 기부금도 내놓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정말 현실적으로 한다면, 목사님을 비롯 누구든지 이분들을 모시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재정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목사님들, 또는 미자립교회들, 주를 위하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데 있다고 말한다.

하다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았고, 그간 돈 몇 톨 벌기위해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말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만 나오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부동산 직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달려왔으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을 이 사업을 통해 도움길에 잃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적은 돈을 투자해서 2-3년 후면 투자한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예컨대 돈 있는 사람 혼자서 투자할 땅을 목사님들의 형편에 따라 조금씩 나누어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 소유로 각자 개인 소유 지분 등기를 해 드려서 2-3년만 참고 기다린다면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창출되어 어려웠던 목회에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많은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례비도 없이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를 시작한 것은 이제 3-4년 정도 되었다. 양 회장은 평소 개척교회 100개를 개척해야겠다고 기도했지만 사실 실천이 어려웠으며, 돕는 교회가 하나 둘 늘어간다 보니 점점 심적으로 심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기도하는 중에 위에서 밝혔듯이 각자 가진 것만큼 어렵겠지만 생각을 바꾸어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는 이를 접목을 시켜드려서 관리를 해 드리면 후에 가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 될 것이다.

사실 비기독교인을 보면 결국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일이 많다. 돈도 많고 목에 힘주는 이들도 많다. 돈을 벌려면 그들을 상대하면 사업이 된다. 하지만 양 회장은 형편이 열악한 환경에 목회자들을 돕자는데 결심을 가졌으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와의 접목을 시켜드려 그 혜택을 드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양기선 집사의 믿음이요 선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회장 양기선 집사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오는 목회자, 장로, 권사, 평신도를 VIP로 환영하고 대접하면서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 연락처
대표 양기선 02-558-6610 010-5560-0190
부회장 이동일 02-539-3014 010-2332-1379

존 웨슬리 회심 272주년기념 연합성회

교단의 분열과 갈등의 벽을 넘어 영적

재무장을 위해 감리교가 새로워져야



존 웨슬리 회심 272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감리교회 연합성회가 5월 23일 오전10시30분 서울 망우동 소재 금란교회(김흥도 목사)에서 기감 서울연합 부흥전도단 주례로 3,0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회장 신문구 감독은 감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회당 조화 일치와 무지개 서울연합회라는 표어로 시작하여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혼란스러운 감리교회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감리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해 왔다. 존 웨슬리 선생의 울더스케이프 회심의 사건을 통해 영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서울연합회와 감리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길 바란다. 서울연합회는 감리교회의 모연회로 감리교회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운동에 서울연합회 부흥단이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성장해 왔다. 배기성 단장과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서울연합회부흥단이 더 큰 능력과 비전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하를 했다.

또한 단장 배기성 목사는 웨슬리회심 기념성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물질만능 인본주의가 사회적 불안을 틈타 이단들과 함께 이 시대의 영혼들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교단의 분열과 갈등의 벽을 넘어 치유와 영적재무장을 위해 감리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서울연합회 부흥단이 영적쇄신의 문을 열고, 선두에 서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간구해야 한다. 불신과 방탕의 18세기에 요한 웨슬리를 들어 살리신 하나님은 회심성회를 통해 서울연합회를 살리고 감리교회를 살리고 한국사회를 살리는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며, 금번 성회에 성령충만의 기쁨부음을 체험하는 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했다.

차인표-신애라 부부, 혁신상 수상

한국컴패션으로부터 32명 1:1 결연 후원, 6개 나라 9명 대학생도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은 5월 11일 '포니정(PONY) 혁신상' 수상자로 차인표-신애라 부부를 선정했다.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한국컴패션을 통해 2005년부터 전세계 가난한 어린이 32명을 일 대 일 결연을 맺고 후원하고 있다. 그 중에는 6개 나라 9명의 대학생도 포함된다.

후원을 받아 대학생이 된 9명은 필리핀의 아이비와 줄리엔, 인도의 두르가, 페루의 카를로스, 볼리비아의 패티와 에스터, 에티오피아의 아디수, 우간다의 줄리엣과 스벤서이다.

컴패션의 후원 어린이들이 대학에 가면, 엄격한 추천과 치열한 선발 과정을 거쳐 '1:1 리더십 결연 프로그램'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부부는 2007년 2월 에티오피아 방문시 엔타카추라는 대학생들 만나 3년 전 '1:1 리더십 결연 프로그램 장학생'을 후원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명문 약대

를 다니는 인제였으나 2년째 약성 폐결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한 부부는 '1:1 결연 프로그램'으로 컴패션에서 지원하는 치료를 통해 다음해 건강해진 엔타카추를 다시 만났다.

엔타카추는 "도와주신 분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가난한 조국의 아픈 이들에게 베푸는 약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간다의 스벤서(26)도 지난해 말 우간다기독교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후원자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감사했다.

한편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 1억원 역시 한국 컴패션에 기부하기로 했다.

한국컴패션은 1:1 리더십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결연된 아이들의 나라의 혁신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극빈국의 미래 지도자 양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뉴스피워



(주)금호상조

1566-4428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운구에서 장지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장례절차 어디서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준비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 반 형	20,000 X 120회=2,400,000원
고 급 형	30,000 X 100회=3,000,000원
최고급형	40,000 X 90회=3,600,000원
VIP형	50,000 X 100회=5,000,000원



직 원 모 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 장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 조	0명	무경험자 가능 30~50대 (보혈경력자 교수역)	기본급(출근)+영업수수료
설계사			각종 행사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집사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 혜택 등 지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

(주)금호상조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 가임고객 전산인력 금융결제원 고객탐종거래 신청
- (주)금호상조중서 및 약관발급(우편발송 7-15일 소요)
- 월불입금 x 10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월불입금 x 120회 = 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임종시 (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국 1566-4428
- 상환접수 회원조회 고인성명 및 병원확인
-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 장례용품 제공, 고인 시신수습 및 빈소 마련, 유족과 협의 종료, 기종에 따라서 알맞는 행사 진행
- 염습 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 발인제시간에 맞추어 장의차 배치, 장지도출발 안내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알선
- 묘지 이상
- 식물 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역인부
- 여지알선
- 꽃상여
- 화환
- 도시락 등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군,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말한다 2」 “아버지학교의 교육을 통해 부모님과 소통을 배워요”

인물인터뷰
화랑교회 담임 김용호 목사



화랑군인교회 담임 김용호 목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영의 사역이 있으신가요?

매년 교회에서 6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담습니다. 허허, 말이 600포기지 쌓아놓으면 자그마한 배추의 산이 됩니다. 아무튼 이 김장 김치를 담궈서 20포기씩 20명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상근 예비역에게 보냅니다. 물론 김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면 한박스 쌀 20kg 한포대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사실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역생활하느라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부디 군생활 잘 마쳐서 세상에 나갔을 때 용기 잃지 말고 큰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포기의 김치로는 매주일 중식때 반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 일이 다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밖에도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화 k역 외에도 매주일 병사들에게 중식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이등병 간담회, 전입신병 상담, 매주 수요일 미용봉사, 사람의 온ница, 생일자 생일 파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가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정이라 하면 행복하며 안정감을 얻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러한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 것이 있으



예배를 마친 후 장병들의 즐거운 식사

신지요?

현대사회는 정말 수 많은 가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IMF때 이혼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올해도 보니 이혼률이 IMF때와 같이 높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가 이혼을 하며 자녀들은 비행을 저지르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어지면 서 가족과 가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정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갈 리더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란 가정이란 배를 거친 세상의 바다에서 이끌어가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제대로 항해하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거나 다른 항로로 들어가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수 많은 남자들이 아버지가 되지만 올바로 배우질 못합니다. 폭풍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된 리더쉽을 가지지 못하니 가정이 흔들리고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화랑교회에서는 매년 3~4회 이상 예비 아버지 학교를 개최합니다. 학교란 뜻 그대로 나중엔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아버지가 될 예비 아버지들인 장병들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인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의 기간동안 병사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강의, 세족식, 포스트 그리

기, 편지 쓰기, 촛불의식 등으로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교육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장병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교육만이 아버지 학교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는 병사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면 스태프들은 참가 병사의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마지막 날 예비 아버지학교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들 통해 각종 편지와 직접적인 상담과 만남으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저희 화랑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20여가지로 구성된 한식 뷔페를 준비합니다. 부모님과 병사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아버지학교가 끝나는 시간부터 참가한 모든 병사에게 2박 3일간의 특별 위로 휴가를 주어 부대를 떠나 자유롭게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를 증오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품고 다닌 병사가 아버지학교를 통해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15년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던 병사가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만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며 부대 부작을 병사들이 부대에 잘 적응하여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엔 복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스태프들과 조장은 전부 목사님 혹은 집사님 등 직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직분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세족식을 부모님께 헤드림으로써 넘치는 감동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 해결과 병사들에게 간접적 복음의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매주 정말 흥미 진진한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니, 목사님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른 화랑교회의 사역이야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바리 예전보다 의미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명절은 온 민족의 축제의 장이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모

두들 고향으로 내려가 가족과의 상봉을 기쁨으로 만끽하고 있을 때 병사들은 그저 전투휴무라 해서 생활관에 멍하니 앉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나 보거나 잠으로 시간을 보내는, 소위 비는 날일뿐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분도 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전역 후에도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추억 만들기입니다.

추억 만들기는 매년 신정, 구정, 추석 이렇게 3대 명절 때마다 열립니다. 특히 이번 구정 추억 만들기는 부대 일정에 정식으로 반영되어 간부식당에서 전 병력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추억 만들기에 참가한 병사들은 중대

별로 간부 식당에서 교회에서 준비한 만두 속과 만두피, 튀김 물과 튀김, 부침개 반죽, 떡, 식혜 등등으로 만두를 만들어 먹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튀김도 튀겨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서로 먹고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선후임간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하나로 화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 개인적으로 화랑교회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010-5756-1003(김용호 목사님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번호
우체국 300111-01-004844 (화랑군인교회)
국민은행 405-21-0602-938 (화랑군인교회)

“8명 아이들의 아버지 된 것 같아 보람 느껴”

육군 60사단 서태영 중사, 보육원서 남몰래 봉사활동

작전 및 근무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수도서울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육군 제 60보병사단에서 주말마다 보육원에 찾아가 불우한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온 장병의 사연이 뒤늦게 밝혀져 병영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60사단에서 복무중인 서태영 중사(31세). 서 중사는 평소 일과 이후와 주말이면 언제나 ‘파주 보육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서 중사의 아름다운 선행은 장병들의 입소문을 통해 주위에 알려지게 됐다. 서 중사가 남몰래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불순’하다. 지난해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회복지사’ 이기선 양(28세)을 만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면 ‘파주 보육원’으로 향한 것이다.

보육원에서 함께 8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서 중사는 점차 봉사활동의 ‘즐거움’에 매료됐고, 이제는 연애가 목적이 아닌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보육원을 찾게 됐다. 파주 보육원은 현재 70여명의 버림받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서 중사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일과 이후 저녁시간과 주말은 물론,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여행을 가고, 집으로 데려와 1박 2일간 ‘가정체험’을 실시하는 등 자신의 아이처럼 아낀다. 무뎠던 대한민국 군인을 다정다감한 ‘예비 아버지’로 만든 것은 바로 ‘아



이들’인 것이다. 서 중사는 “젊은 나이에 8명의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니,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마치 내 아이 같다.”며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니 정말 ‘아빠’가 된 기분이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서 중사는 보육원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이지만, 부대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위풍당당한 군인’이다. 2004년 중사로 전역한 후 군인이 좋아 다음 해 재입대한 경력의 서 중사는 12회에 달하는 각종 포상과 IT 자격증을 구비하는 등 자기 계발에도 충실한 ‘모범 간부’다.

한편, 부대는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부대 차원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불우이웃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부대상을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교회가 부패한 사회를 막지 못하면 부패한 사회가 교회를 부패케 할 것이다.
교회가 亡하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亡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改惡)을 응징하지 못할 때 亡한다.

한글 개역(改譯) 성서는 개역(改易)이고, 개정(改正)은 개악(改惡)이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오정(五正)은 오악(五惡)의 거짓말이다.

■ 거짓말 개악성서를 모두 리콜하라.

1. 한국 도요타의 거짓말

일본의 ‘한국 판매 차량에 문제는 절대 없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1만 3천대에 대하여 서둘러 리콜 조치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요타가 속페달 결함을 고의로 은폐해 왔다는 이유로 1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선일보 2010년 4월 7일) 우리 나라에서도 내년부터 TV, 세탁기 등 가정 제품과 모든 문구, 장난감 등 생활제품 불량품에 대하여 강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국민일보 2010년 3월 1일) 그런데 개악성서들은 왜 리콜하지 않는가!

2. 대한성서공회의 거짓말

1998년(666×3)에 대한성서공회가 72,712곳을 개정한 성서는 개악(改惡)성서로 판정이 났다. 오역된 단어와 문장이 1만여 곳, 그 가운데 시급히 고쳐야 할 곳이 4천여 곳, 개악(改惡)이 8백여 곳이 된다.(강원주, ‘개역개정판에 대하여 말한다’의 머리말) 기타 원문상의 오류가 3만여 곳이 된다.

- 대한성서공회는 개악의 진원지(震源地) · 개정위원 및 감수위원은 맹약(盲惡)
- 대한성서공회 선전요원 목사들은 열악(劣惡)
- 개악성서 사용을 결의한 교단들은 우악(愚惡)
- 연합총동회는 다악(多惡)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총악(總惡)
- 한국성경공회 오정(五正)은 오악(五惡)

* 렬 2:19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네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러면 네게 주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러진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3. 한국성경공회의 거짓말

2007년에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다섯 가지(五正) 원칙(①바른 신학 ②바른 원칙 ③바른 역사 ④바른 언어 ⑤바른 번역, 바른 대본)은 오악(五惡)이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바른 성경’이란 명칭은 1993년에 바른성경선교회가 창립하면서 등록한 출판사 명칭이다. 이 출판사에서는 ‘바른성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엄밀하게 검토한 결과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바른 성경’의 다섯 가지 원칙은 모두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다. 그 후부터 본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거짓말 성서’라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손기태 저, 개악은 개악이다, pp.101~119)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영원히 사람받지 못하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마 12:21~22)

4. 13구절의 거짓말

개악성서는 다음 13구절(마 17:21, 18:11, 23:14, 막 9:44, 46, 11:26, 15:28, 눅 17:36, 23:17, 행 8:37, 15:34, 24:7, 28:29)에 괄호를 치고 (없음)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편 ‘바른성경’은 배교의 결정관 NIV를 답습하여 괄호 처리를 하지 않고 짚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성경을 속이는데 개악성서보다 더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13구절 가운데 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졌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막 13:31, 눅 21:33)고 하셨다. 그런데도 성경을 번개시키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괄호나 짚 뛰어넘기 같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거짓말 ‘개역개정판’,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오악(五惡)의 거짓말 성서들은 하루 속히 서둘러 모두 리콜하라. 이것은 연속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렬 23:16,17)

■ 하나님의 최후 경고! (계 22:18~20)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총동원하여 이 일을 위해 힘을 모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개악은 개악이다’ (손기태 박사 저) 저서에는 ‘개역개정판’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오류들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책을 한국 전교회에 무료로 우송하는 운동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팩스 (031-594-3733)로 신청하시면 즉시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송료는 본인 부담)

‘개역개정판’,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하루속히 모두 리콜하라! Recall하라!



바른성경선교회 · 개악성서 리콜운동본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8-9
(031) 592-7079, 594-3733(Fax 겸용)

살기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꿈과 낭만의 도시 ...



춘천 특급 강조망 명품 땅 마지막 기회 !

(주) 해피웍은 시행 및 시공 업체로서 토지 사업부에서는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2010년 경춘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하여 서울과 40분대 거리의 신 수도권으로 편입된 꿈과 낭만, 희망의 도시, 박사 마을로 유명한 춘천 서면의 투가가치가 뛰어난 강조망을 확보한 명품 전원주택지를 특별 분양 합니다.



투자가치와 입지여건

-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완료
- * 2010년 12월말 경춘복선 전철 개통 (출,퇴근 가능)
- * BTB 아일랜드, 풀 하우스, DCT 스위스 호텔 학교 공사중 - 수상특지, 호텔, 콘도, 썬랜드, 윈터파크, 마리나정박장 등
- * MBC 주말특집극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제작지원 및 모델하우스 촬영 (토, 일 21:45분 방송, 송일국 주연)
- * 동해안 1시간대
- * 도심권 10분대(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대학교)

서울 ~ 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후 변화 (전년도대비)

- * 요식업소 평균매출 51% 증가(막국수, 닭갈비)
- * 숙박업소 이용률 90% 회복(호텔, 콘도, 모텔, 펜션)
- * 관광지 100% 증가 (청평사, 서면 박사마을, 골프장등)
- * 골프장 회원권 프리미엄 상승
- * 춘천 관광객 1000만시대
- * 부동산 가격 상승 (주변시세 3.3m² 당 150 ~ 300만원 형성)

* 책 임 등 기 : 하준식 법무사 (ESCROW 제도)

* 측량 및 인허가 : 삼원 기술단

ESCROW 제도 : 부동산의 매매 체결시 책임등기, 자금관리를 전문 ESCROW 회사(법무사, 변호사)가 대행하는 제도

(주)해피웍 사업 실적

자체 사업	속초시 조양동	삼성 웨르빌 (2006년 8월 입주)
	태백시 황지동	지구단위 수립, 사업승인 완료
	서울 강서구	주상 복합 단지 사업
분양	도곡동 아크로빌	1996. 09 (주상복합 490세대)
	이문동 e-편한세상	2001. 06 (아파트 1,561세대)
사업	서초 롯데 캐슬	2008. 02 (주상복합 50세대)
	천안 e-편한세상	2008. 07 (아파트 571세대)외다수

단지 현황 및 공사 내역



분 양 조 건

3.3m² 당 A Type 65만원 B Type 75만원
C Type 90만원

신청금 : 100만원 (미계약시 당일 전액 환불)

예금주 : 하준식 법무사 (농협 : 351-0138-6946-13)

* 방문 계약시 계약금, 도장, 신분증 필요합니다

상담 및 분양 : (주) 해피웍 대표전화 (02)539-20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8-33 우리빌딩3F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렐 17 : 14)

찬양치유 2급과정 3개월교육



장창윤목사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www.0675.us)

인천지부 (www.naver.com/cafe0924)



황창식목사

문의 : 서울본부 010-5678-9950 / 인천지부 032-888-9687 010-7134-9687

일시 : 2010년 6월 10일 (목) 오후 2시

장소 : 인천주영광교회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



이천 부발 토지 투자 포인트 분석

1.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가. 성남 여주간 53km의 복선 전철을 건설하여 수도권 동남부 외곽 광역 전철 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 수요 분담

나. 서울 강남에서 30분대 거리에서 접근 가능하여 수도권 위성도시로 발전하여 신분, 이천, 부발 역사를 건설, 2007년 11월에 판교 ~ 분당간 노선을 착공하였고 2013년에 전구간 개통예정

다. 신분역은 구거타운중심으로 개발하고 이천역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부발역은 부발 - 충주 - 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 고속전철과 평택 - 원주간 복선전철의 트리플 환승역 환승역주변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

2. 성남 ~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가. 기존 3번 국도 만으로도 물류수송에 한계가 있어 날로 발전되어 가는 이천시를 중심으로 한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고자 성남 - 이천 -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수도권 동남부 군 분담하고 분당, 판교, 서울간의 교통체증 해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

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공되면 서울강남, 분당, 판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판교, 분당을 10분대, 서울 강남권은 20 - 30분대 진입이 가능하여 분당, 판교 생활권에 편입

3.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및 첨단 산업단지 유치

가. 부발을 가짜리 일원 18만 2천여평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입주하였고 최근 증설기로 하면서 추가 고용인력의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

나. 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업체의 증가와 신규입주로 지역경제가 발전되어 부발역사를 중심으로 한 아미지구, 산촌지구의 상업중심 명품신도시로 발전 가능

다. 첨단산업의 유치로 교통 및 접근성이 좋은 이천IC 주변의 획기적인 발전 기대

4. 동양 최대규모 패션 아울렛 단지 입점

가. 약 30만평에 패션 아울렛, 공원, 영화관 및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

나. 패션 아울렛이 완공될 시 한해 약 1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천 최고의 관광지로 부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5. 특전사령부 이천으로 이전

이천시 마장면 화곡리 일대에 특전사령부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이천시에 대한 혜택



소장
양기선

